

#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게요

자료제공 : 정은숙 \_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사무국장

지 하철 7호선 수락산 등산로를 따라 15분 정도를 걸어 수락산 초입에 닿으면 “서울 안에 이렇게 공기 좋은 곳이 있을까?” 감탄부터 자아내게 만드는 곳,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은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의탁어르신 70분을 보호하는 요양시설이다.

이곳은 가족들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그 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8년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서울시립양로원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무의탁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기능과 노인이 되어 나빠진 건강상태로 질병에 대한 수발의 욕구가 높아져 서울시립노인요양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었다.

##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

1982년, 서울시립양로원은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전하여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주거의 공간을 제공하는 양로원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시립노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와 복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성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요양을 책임지게 되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전경



있으나, 치매나 중풍 등의 질환은 입소가 제외된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우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시설입소신청을 하면 입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증가로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소신청을 하는 즉시 입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기 순서에 의해 입소가 결정됨으로 시설 입소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거주하던 집과 가까운 시설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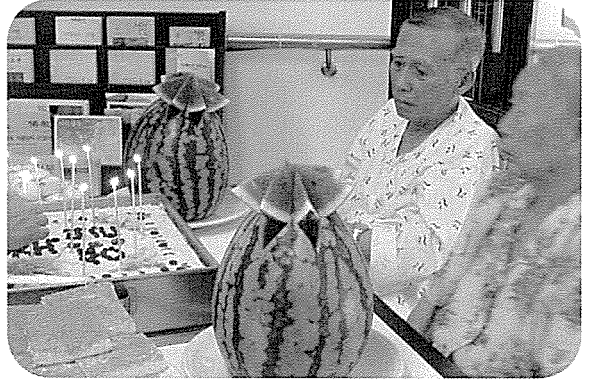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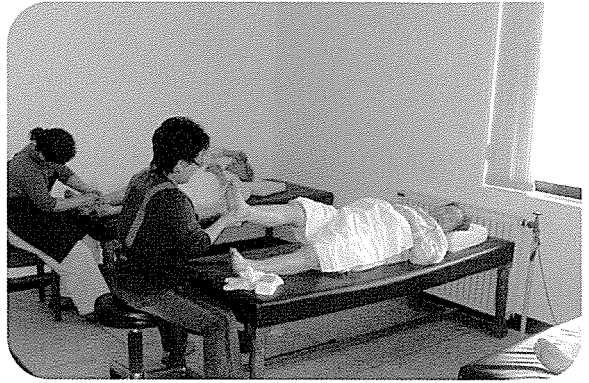
우선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사례관리를 통해 요양원 생활 중에 필요한 욕구를 사정하고 의료, 간호, 물리치료, 한방진료등 의료적인 서비스와, 정서함양과 여가를 위해 음악, 원예, 미술치료, 나들이, 각종 기념일축하 등의 서비스, 급식, 목욕, 이미용, 면도, 손발톱 정리 위생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게 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지압안마, 기치료 등의 서비스도 받으시며 운영 간담회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다.

시설 내 생활사회복지사 1명 배치로 어려워 노인 복지 관심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살아있는 체험의 장 70분의 어르신 중 할머니가 47명, 할아버님이 23명 입소가 가능한 시립노인요양원.

이곳은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질병을 가진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므로,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되고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33명의 직원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전문직 직원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케어를 도와주는 생활지도원, 조리원, 운전기사, 관리기사 등의 직원이 상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어르신 인원에 관계없이 생활복지사라는 명칭으로 사회복지사를 1명밖에 채용할 수 없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자원 활용등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다행히 우리 시설의 경우는 생활지도원 보직중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직원이 있어 전문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 이곳은 가족들의 사랑이 필요한 무의탁노인들에게 좀더 필요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모습으로 발맞사지, 생일잔치, 공원 나들이 모습이다.



▲ 서울시립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왼쪽부터 고은연, 이미선 사회복지사, 정은숙 사무국장, 이희정 과장, 강민석 부장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와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욕구, 열심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어르신들의 임종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인내심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립하여 실천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의 현장이다.

### 지역 자원 이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 시설의 사회화에 많은 도움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곳은 시설의 사회화를 위해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와 중고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효체험학습”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4월엔 수락산봄꽃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정성스럽게 봉양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은 인연을 지으실 수 있도록 행복한 일상을 지켜드리며 특히 죽음에 임박한 어르신들을 위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임종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가족 간의 노인부양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 마다 “내 무슨 복에 이

렇게 말년을 좋은 집에서 보낼까?” 하시며 해맑게 웃으시는 요양원 어르신들~~

그래도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욕심이지만 잠자듯 편안히 죽는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을 지켜드리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다.

어느 날 우연히 자연의 힘에 이끌려 수락산을 찾으면 힘찬 3·3·7 박수 소리에 맞춰 불편한 몸이지만 휠체어에 앉으신 채 활기차게 운동하는 시립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시립노인요양원 \*

(139-8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신51

Tel.02-939-6176 Fax.02-3391-2061

